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026 ILRC 물류로봇경진대회’ 후원 AI 물류로봇 인재 육성

2026. 6. 7.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금쪽이’ 팀(왼쪽부터 신상민, 박신후)이 CFS 정중철 대표이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지난 4~5일 양일간 개최 전국 고교·대학 129개 팀, 361명 참가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상’ 시상 수상자 전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특전

2026. 06. 07.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 물류 산업을 이끌어갈 AI 로봇 기술인재 발굴에 나섰다.

CF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동 주최한 ‘2026 ILRC(International Logistics Robot Competition) 물류로봇경진대회’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기술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를 위한 행보를 펼쳤다.



‘쿠팡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로지로직’ 팀(왼쪽부터 백동훈, 정원석)이 CFS 정종철 대표이사와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4~5일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등·대학교 129개 팀(361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학생들은 실제 물류 현장의 메커니즘을 반영한 로봇을 직접 제작·구동하며 무인운반로봇(AGV)의 위치 인식, 자율이동로봇(AMR)의 장애물 회피, 영상처리 기반 객체 인식 및 매니플레이터 정밀 제어 등 실무형 AI 기술의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았다.

CFS는 기술 역량이 우수한 총 2개 팀을 선정해 ‘쿠팡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상’을 수여했다. 또한, 대회 수상자 전원에게는 향후 CFS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연계 혜택을 마련했다.



2025 ILRC 물류로봇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CFS 대표이사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로지로직’ 팀 백동훈 군은 “기회가 된다면 쿠팡에 입사해 스마트물류 기획 업무에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고, 같은학과 ‘곰쪽이’ 팀 신상민 군은 “시를 더 공부해서 물류 혁신을 이끄는 기술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미래 물류 로봇 전문가들의 도전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며 “학생들이 첨단 물류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 ILRC 물류로봇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한편, CFS는 전국 주요 풀필먼트센터에 무인운반로봇(AGV), 자율주행 이동로봇(ACR), 포장 자동화 로봇(오토배거), 로봇틱 암(Robotic Arm) 등 AI·로보틱스 기반의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스마트 물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